

‘숲의 호흡’…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조용한 울림

영암 아천미술관, 재불작가 홍일화 기획초대전 ‘여전히 숲은 말하고 있다’…내년 1월 30일까지



150호 연작·대형 작품으로 만나는 ‘겨울의 숲’
한·불 수교 140주년 국제적 문화 교류 장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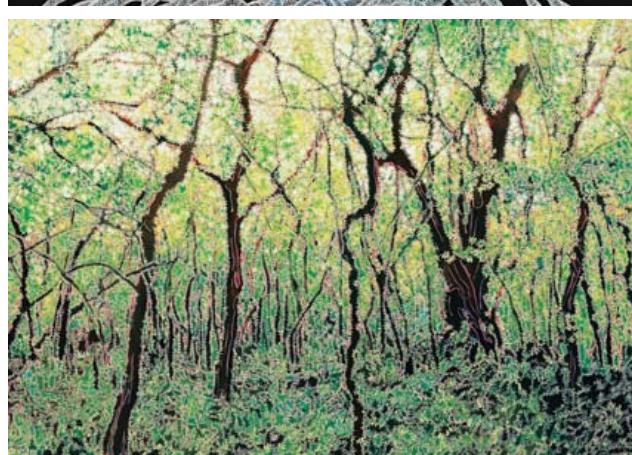
프랑스의 서정성과 한국 남도의 자연성이 조화롭게 교차하며 새로운 감성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회화와 미디어, 문학을 넘나들며 자연이 지닌 생명성과 미세한 감각을 탐구해온 재불작가 홍일화(사진)가 영암 아천미술관에서 기획 초대전을 연다. 오랜 시간 자연을 바라보고 사유해온 작가의 시선이 이번 전시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다.

전시 주제는 ‘여전히 숲은 말하고 있다’. 숲의 숨결과 빛, 생명의 흐름을 화면에 겹겹이 쌓아 올린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의 감성이 이어지는 순간을 캔버스에 펼쳐낸다.

프랑스 국립 고등 예술 조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홍일화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20여 년간 국제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작가다. 프랑스·한국·룩셈부르크·일본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지속적으로 열어왔으며, 암스테르담 반고흐 아트 파운데이션 등 해외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는 등 국제적 평가를 받아왔다.

작가는 회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왔다. EBS ‘서양미술기행’과 ‘세계테마기행’ 진행을



‘음 Eum’(사진 위)과 ‘별뉘 1128’



‘구름의 씨앗 0826’

통해 예술의 대중적 접근을 넓혔고 영화 ‘리얼’ 미술 참여, 제주 아르떼뮤지엄 미디어아트 상영, KCC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여러 협업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자연 생태와 인간 정서를 바탕으로 한 애코 판타지 소설 ‘빛이 숨을 쉴 때’를 출간하며 문학의 영역까지 작업을 확장했다.

그의 작업은 자연이 전하는 미묘한 변화를 시작적으로 풀어내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적 대작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약 9m 길이의 ‘별뉘’ 5점 연작과 세로 2.27m, 가로 7.27m에 이르는 대작 ‘천이(遷移, Succession)’는 전시장 전체를 감싸는 공간적 울림을 만들어낸다. 작품들은 개별 화면을 넘어 하나의 풍경처럼 이어진다.

숲의 결과 계절의 빛, 생명의 흐름이 겹겹이 쌓인 화면은 미술관을 ‘겨울의 숲’으로 탈바꿈시킨다. 관람객은 그 고요한 숲길을 천천히 걷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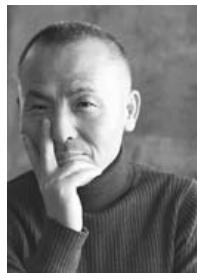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는 2020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프랑스에서 형성된 작가의 예술적 감성과 영암의 자연적 정서가 만나는 자리이다. 지역 미술관에서 이뤄지는 국제적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주목된다.

전시 기획을 맡은 김현희 학예실장은 “홍일화 작가의 작업은 자연 생태가 지닌 숨결과 감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며, 관람객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며 “숲의 고요함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회복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1월 30일 까지 제1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강운의 노랑’

강운의 캔버스상세



“태양을 노란색 점으로 바꾸는 화가가 있는가 하면, 지적 능력과 예술성을 발휘해 노란색 점을 태양으로 변모시키는 화가도 있다.” -파블로 피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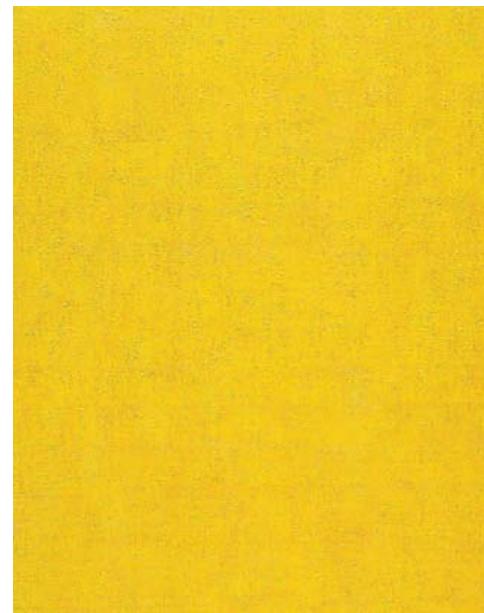
음의 빛”이 되었다.

스페트럼에서 노랑은 인간의 눈이 가장 먼저 인식하는 색이자, 가장 눈부시게 다가오는 빛이다. 고흐가 남긴 ‘노랑’은 단지 물감의 표면이 아니라, 황금의 아우라로 영원을 비추는 개성화된 빛이었다. 가장 순도 높은 노랑, 고음의 노랑을 찾아낸 빈센트 반고흐. 그래서 나의 노랑은 언제나 그에게 바치는 오마주에서 출발한다.

나는 묻는다. 고흐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고통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지켜봐 주는 순간에 비로소 덜어진다.

예술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이가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확인이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노랑을 보았다. 그렇다면 나 역시 묻는다. 나는 나일 수 있는가.

노랑의 해석은 각자의 뜻이다. 노랑 속 진리는 사랑의 깊이만큼 드러난다. 밝은 고통을 딛는다.



‘마음산책-강운의 노랑’

고 있지만, 시선은 언제나 희망의 노랑을 향해야 한다.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당장 도달할 수는 없어도, 노랑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일, 아모르 파티이다.

〈대인동에서 화가강운〉

15대 광주문인협회장에 박덕은 시인

광주문인협회 제15대 회장에 박덕은(사진) 시인이 선출됐다.

현 회장의 연임 도전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지난 14대 선거에 이어 두 후보가 3년 만에 다시 맞붙은 재대결로, 문단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광주문인협회는 지난 17일 광주예총 방을 소리공연장에서 실시한 제15대 회장 선거 결과, 박덕은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수 473표 가운데 305표(약 65%)를 얻어 현 회장인 이근모 후보(168표)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박덕은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회원 간 소통과 화합 강화 ▲협회 홈페이지 개편 ▲회원 합동출판기념회 추진 ▲연임 금지 정관 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박덕은은 당선 소감을 통해 “회원 누구나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투명한 광주문인



협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작품 발표의 기회를 넓히고,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덕은은 당선자는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광주문인협회 조대 사무국장과 제2·3대 평론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시문학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와 평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한 문학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박덕은은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최명진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m²당 50만원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 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률80%)**
분양가 : 3.3m²/45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 +관리사 +휴게실
(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
(기술지도)